3강 이상과 『날개』

1. 짐멜과 이상

1.1 짐멜

◇ 지금은 절판된 『돈의 철학』의 저자

◇ 짐멜은 돈과 대도시의 삶에 대해 이야기 했다.

1.2 이상

◇ 이상은 돈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사람

◇ 돈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가?

◇ 이상의 소설 『날개』를 보면 돈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.

◇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 -그 외의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나는 또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. 쾌감이라면 어떤 종류의 쾌감일까를 계속하여 연구하였다. (…) 나는 아내 이불 위에 엎드러지면서 바지 포켓 속에서 그 돈 5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. 이튿날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내 아내 방 아내 이불 속에 있었다. 이것이 이 三十三번지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내가 아내 방에서 잔 맨 처음이었다. (…) 정신이 한결 난다. 나는 지난밤 일을 생각해 보았다. 그 돈 五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에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. 그러나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내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.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어 보았다.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까지 지내 온 내자신이 어떻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 몰랐다. 나는 어깨춤이 났다. 따라서 나는 또 오늘밤에 외출하고 싶었다. 그러나 돈이 없다. 나는 엊저녁에 그 돈 오원을 아내에게 주어버린 것을 후회하였다. (…) 뜻밖에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다. 2원밖에 없다. 그러나 많아야 맛은 아니다. 얼마간이고 있으면 된다. 나는 그만한 것이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. 나는 기운을 얻었다. 나는 그 단벌 다 떨어진 콜덴 양복을 걸치고 배고픈 것도 주제 사나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활갯짓을 하면서도 또 거리를 나섰다. 「날개」『조광』(1936.9)

2. 이상의 『날개』(전반부)

2.1 부인이 계속 '나'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?

◇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폐기하는 대가다.(정상적인 남편 행세를 하지 말라!)

◇ 주인공은 '돈'을 가지고 나서야 활갯짓을 할 수 있다. (깨달음)

2.2 역전관계

◇ 두 번째 장면에서는 '나'가 부인에게 돈을 준다.

→ 이는 부인이 이전처럼 남편을 다룰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◇ 부인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다.
→ 돈으로 안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방법

3. 문학가의 삶

3.2 세 명의 문학가

◇ 나쓰메 소세키, 보들레르, 이상 이들은 이론가들보다 먼저 대도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.

◇ 모든 철학자들은 위대한 문학서들을 탐독했다.
→ 철학자가 아니기에 독자적인 개념은 없지만 그들의 형상화 작업은 탁월하다.

◇ 나쓰메 소세키는 영국유학 도중 문화의 괴리감을 느꼈으며 곧이어 절망감에 빠진다.

◇ 보들레르는 해시시에 도취되었다.

◇ 이들 문학가들은 분열을 끌고 나간 사람들이다.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적응하듯...
→ 이들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하나의 치료행위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